

[우리 동네 은빛 발자취]

# “우리 협회는 따뜻한 한가정입니다”

## —장춘시이도구조선족로인협회 이야기



4월 11일 활동일, 리춘영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회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 정현관기자

“우리 협회는 그저 모임터가 아니라 회원들이 서로 정답게 지내는 따뜻한 한가정입니다.”

4월 8일, 기자와 만난 장춘시이도구조선족로인협회 리춘영(76세) 회장의 말이다.

1987년 3월에 설립된 이도구조선족로인협회의 전신은 ‘이도구조선족로인독보조’이다. 현재 회원이 120명인데 그중 당원이 21명이다. 협회 회원들의 평균연령은 75세, 최고령자는 92세이다. 매년 활동일 때면 로인들은 장춘시 동향성로 양포사회구역에 자리한 294평방미터 되는 넓직한 협회 활동실에 모여 활동하는데 하루종일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활동실이 있는 건 아니다. “한때는 이도구문화관, 공장 활동실, 이도구조선족소학교 교실 등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에 한 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에 정말 감지덕지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자리도, 함께 즐길 자리도 생겼어요”

2020년 4월, 협회는 장춘시민족사무원회의 지원 아래 ‘대수술’을 했다. 낡은 난방 배관을 갈고 냄새 나던 화장실을 수선하고 로인들을 위한 안전손잡이까지 설치하면서 새롭게 단장했다. 주방도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활동일이면 회원들이 저마다 반찬 한

가씩씩 싸들고 와서는 된장국을 끓여서 함께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친목을 도모한다.

“함께 밥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국한그릇으로 회원들간의 정이 더 돈독해집니다.” 리정호 부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침마다 모여서 20분 동안 가볍게 체조를 하고 우리말로 당의 방침정책, 시사 학습을 한다. 그다음엔 노래 연습, 춤 연습, 악기 합주... 요즘의 협회 풍경이다.

협회에는 악단, 무용대, 합창단이 모두 갖추어져있는데 무용대에만 해도 46명 무용수가 있다. 프로젝트(投影)와 자동순수기까지 생겼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자리와 함께 즐길 자리도 갖췄어요.”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회장 리춘영과 지도부의 끈끈한 단합이 있었다. 활동일이면 리춘영 회장은 아침 일찍 활동실 문을 열고 회원 하나하나의 안부를 묻는 일부터 큰 행사 준비까지 앞장서

지 않는 일이 없다. 지도부 성원들도 각자 맡은 일을 즐겁게 하며 회원들을 단합시키는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우리는 다양한 한집안 식구예요!”

협회는 해마다 장춘시 경제기술개발구, 양포사회구역, 동성가두 아태사회구역 등과 손잡고 ‘민족단결의 달’, 국경절, 7.1 당장건 경축 행사를 펼친다. 대형 민족무, 농악무, 남녀합창... 조선족 치마자락이 무대 위에서 휘날리면 관중석에선 여러 민족 로인들이 열렬한 박수로 화답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민족 로인들과의 화합의 소중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민족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조선족 회원들끼리의 정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협회 활동실 현관에 걸린 선전란에는 당의 정책과 조선족 전통문화 문구가 어우러져있다. 2021년,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최한 ‘당장건 100돐 경축’ 시상송대회가 바로 이곳 이도구조선족로인협회에서 열렸다. 전 시 협회가 인정할 정도로 이제 이 활동실은 단순한 모임 장소를 넘어 ‘민족화합의 거점’이 되었다.

“살아온 곳은 각자 달라도 여기서는 모두 따뜻한 한가족입니다. 회원들이 웃는 얼굴로 와서 협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고 웃는 얼굴로 귀가하는 그 모습, 그제 바로 단결의 진모습이지요.”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리춘영 회장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합하여 배우고 즐기고 서로 의지하는’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 제 5 회 전국로인체육건강대회 4 월 개막

최근, 북경에서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제 5 회 전국로인체육건강대회가 올해 4 월부터 10 월까지 전국 15 개 성의 관련 도시 및 현, 구에서 종목을 나누어 개최되는데 총 14 개 ‘로인친화형’ 교류 전시 종목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체를 단련하여 로인의 풍채 뽐내고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을 함께 누리자”를 주제로 하는 제 5 회 전국로인체육건강대회는 유력구(柔力球), 기배구, 건강구체조, 지팡이 짚고 걷기, 태극권 등 총 14 개의 ‘로인친화형’ 교류 전시 종목을 설치한다.

개막식은 태극권 교류 활동과 결부하여 산서 태원에서 열리고 폐막식은 광장무와 결부하여 섬서 서안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근 1 만명 로인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로인체육협회 주석 뤼군은 “이번 대회는 전승, 혁신 및 ‘로인친화형’ 특점을 견지하고 특히 전통 종목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탁상컬링과 피크볼이라는 두가지 신종 종목을 새로 설치하여 전통 종목이 전승되고 류행 종목이 구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가체육총국 대중체육사 사장 진행년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제 15 차 5 개년 계획” 실시 첫해에 전국로인체육건강대회를 개최하여 기층 로인 체육활동의 광범한 진행을 이끄는 것은 ‘활동적 로령화’, ‘건강한 로령화’ 리념을 시달하고 새시대 로인들의 정신풍모를 보여주며 로인을 관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신화사

## 은발소비 건강양생 최우선, 지혜양로 수요는 ‘잠재력’



모란꽃이 활짝 핀 4 월초의 락양 왕성공원. 많은 로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모란꽃을 감상하고 있다. / 최승호기자

최근 중국로령협회는 <은발소비의 현황과 추세—중국로령협회 은발소비 특별 조사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은발 군체 자체가 서술한 소비 수요와 소비 경력에서 가능성 식품 및 옷차림, 관광휴가, 건강양생이 제 1 계층을 차지, 소비 수요 비율이 70% 좌우이고 문제오락, 금융상품, 재택 로인친화형 개조가 제 2 계층으로 소비 수요 비율이 30% 에서 50% 사이였으며 스마트 제품, 로화방지 제품 및 기술, 재택 사회구역 봉사, 교육 양성이 제 3 계층으로 소비 수요 비율이 대부분 30% 미만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은발 군체의 소비 리념은 총체적으로 리성적, 실용성 위주이다. 그중 ‘자아 수요 우선’ 편향 즉 “우선 자신의 건강양로 지출을 보장하고 여력이 있으면 자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60% 에 육박했다.

“세대간 균형” 지향 즉 “지출을 합리하게 분배해 자기 삶의 질과 자녀 수요를 함께 고려한다.”는 비율은 20% 를 넘어섰다. “저축 방어” 편향 즉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저축을 많이 해 돌발 위험에 대비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

“가정 책임 주도” 편향 즉 “개인 소비를 줄일지언정 자녀/ 손주에게 교육, 주택 구매 등 지지를 준다.”에 찬동하는 비율도 10% 미만이었다.

실제 정황으로 보면 각지 여러 부문은 근년에 은발경제를 민생보장, 신동력 육성의 중요 수단으로 삼고 정책 지지 강도를 부단히 확대했다.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는 건강소비 촉진 전문 행동을 조직, 전개하고 의료양생, 건강양생의 결합을 심화하며 재택 의료간호, 호스피스 등 부사를 보급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양로 금융을 다져 로인친화형 개조가 제 2 계층으로 소비 수요 비율이 30% 에서 50% 사이였으며 스마트 제품, 로화방지 제품 및 기술, 재택 사회구역 봉사, 교육 양성이 제 3 계층으로 소비 수요 비율이 대부분 30% 미만이었다.

인터넷 정보기술의 쾌속 보급과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은발 군체의 온라인 소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은발 군체의 소비가 이미 사회구역 가계/ 편의점 소비 비율과 비슷해 모두 40% 좌우이다. 대형 상가/ 슈퍼마켓, 농산물시장/ 장터 등 현실 정경을 통한 소비 비율이 아직도 70% 를 넘는다. / 광명일보



## 촌민 가정 방문해 산림화재 예방 적극 선전

최근, 백산변경관리지대 장천(长川) 변경검사소, 사도구변경파출소, 사도구림업소는 연합으로 선전팀을 구성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림화재 예방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여 촌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효과적으로 높여주었다. / 길림일보

朝夕奔梦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